

先接한 것이므로 특별히 論議할 필요가 없다. 네 語形을 除外한 나머지 語形들은 統合關係로나 系列關係로 볼 때 比較의 대상이 되는 語形이 없다. 이를테면 “3. ㅎ거지라”와 “19. ㅎ거사”는 “거”가 缺如된 “\*ㅎ지라”와 “\*ㅎ사”도 없고, [ㅎ—지라], [ㅎ—사] 환경에 “거”를 대신한 “\*ㅎ느지라”, “\*ㅎ더지라”도 存在하지 않는다. 또 “13. ㅎ거늘”과 “20. \*ㅎ진마룬”도 “거”가 缺如된 “\*ㅎ늘”과 “\*ㅎ마룬”이 없고 다른 형태가 대치된 “\*ㅎ느늘, ㅎ더늘”, “\*ㅎ느마룬, \*ㅎ더마룬”이 存在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어/나”를 先接한 위의 語形들은 분석이 어려운 單一形態素로 보게 된다.<sup>13)</sup>

중래의 中世語의 文法에서 위의 語形에 나타나는 “거/어/나”를 有意的인 單位로 認定한 것은 주로 이들 要素 뒤에 尊敬의 先語末語尾 “-(으)시-”가 插入되기 때문이었다. 또 形態素 識別에 대한 正確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도 중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으)시-”의 插入은 앞의 原則法에서 目擊된 尊卑法 標識 “읏, 入”이 疑問法 “니…가”에 插入되는 일과 같은 것이다(§2.1.2.). 곧 “ㅎ거시늘/ㅎ야시늘”과 “ㅎ거신마룬/ㅎ야신마룬”의 “-(으)시-”의 插入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거…늘/-어…늘”  
“-거…니마룬/-어…니마룬”

疑問法語尾와 같이 不連續形態로 보지 않을 수 없다.<sup>14)</sup>

相關性을 띠고 있는 “거/어/나”系列 語尾의 一次的 기능은 統合用言의 종류를 表示하는 것이고 統合關係나 系列關係를 띤 “거/어/나”系 語尾는 確認法의 기능도 同時에 遂行하는 것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3.2.0. 앞에서 體系化했던 叙法의 順序에 따라 確認法 形態素들의 意味上的 特殊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原則法과 같이 이것이 나타나는 場面の 制約과 이에 의해 表示되는 時相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한다.

### 3.2.1. 不定法

不定法이라 함은 어떠한 時制關聯要素를 先接하지 않은, 圖表의 實在形 “ㅎ거다/ㅎ야다/오나다, ㅎ과라, ㅎ거니라, ㅎ얀더; ㅎ얀다, ㅎ거니아; ㅎ거라/ㅎ야라/오나라; ㅎ거니/ㅎ야니/오나니, ㅎ가니, ㅎ야며; ㅎ진/ㅎ얀/오난, ㅎ얏”을 가리킨다.

- (1) <내 本心 求호 ㅅ슴 업다니 오<sup>○</sup>늘 이 寶藏이 自然히 니<sup>○</sup>틀어다>(口訣文省略)(法華 2:226b)
- (2) <王入 中엿 尊호신 王이 업스시니 나라의 威神을 일<sup>○</sup>려다>(月釋 10:9b)
- (3) “오<sup>○</sup>늘 世尊 알러 문 듣줍더닐 듣줍고 다 疑惑에 ㅼ<sup>○</sup>러디거이다”(口訣文省略)(法華 2:50-51)

13) 필자는 이미 現代語의 “거”系列의 語尾를 分析할 때 이러한 方法으로써 접근한 일이 있다(高永根 1975)

14) 앞의 疑問法語尾와 이곳의 “거/어” 先接語尾들은 不連續形態로 보게 되면 尊卑法 標識 “入, 읏”과 尊敬法 標識 “-(으)시-”는 接腰辭(infix)의 性格을 띠게 된다. 이는 李秉根교수와의 對話에서 學論된 것인데 이곳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4) “네 머그라 우리밥도 머거다”(初老上:22a)

위의 用例들은 모두 [-상태성]의 動作類의 用言들이다. (1)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獨白하는 것이다.<sup>15)</sup> 主體는 “寶藏”으로서 3人稱이다. (2)는 諸釋들이 淨班王의 命終함을 보고 땅을 치고 슬퍼하며 하는 말로서 獨白이라 할수 있다. (3)은 舍利弗이 부처에게 하는 말인데 一方的 通報行爲의 性格이 강하다. 부처는 듣기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主體는 일반 사람들로 想定된다. (4)는 典型的 對話의 用例다. 위의 例들의 事件時는 發話時 直前으로 判斷된다. 統合用言의 動作類가 [-상태성]이기도 하려니와 發話時 關聯의 副詞 “오늘” 등과 共起하고 있기 때문이다.

(5) <安樂國이 는 아미를 보라 가니 어미도 곧 보아 시르미 더욱 긴거다>

(6) <내 상네 이 아미를 思念호되 불 주리 업다니 문득 제 오니 내 願에 甚히 맞거다>(月釋13:16a)

(7) <내 천량 庫藏을 이제 맞출 디 잇거다>(月釋 13:15a)

(8) <문득 來를 바도니 마치 분별 업거다>(永嘉下:167b)

(9) <아들과 여희 디 쉬나 디 히어다>(月釋 13:9b)

(10) “내…天帝入 命을 받조와 와 擁護 컨 디 오라거다”(楞嚴 7:62a)

위의 用例는 [+상태성]의 動作類를 用言이다. (5)는 소치는 아이의 노래 가운데의 一節로서 獨白이다. (6)은 돈많은 長者가 師子座에서 아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하는 말로서 (7)에 계속되는 말이기도 하다. (8)은 大師의 答書로서 一方的 通報行爲의 性格이 짙다. (9)는 “아미 每樣 아미를 念호되”가 先行되어 있으므로 明白한 獨白이다. (10)은 神인이 律師에게 하는 말로서 對話上의 用例다. 위의 用例들의 主體는 모두 3人稱이다(~~~참조). (6)만이 外顯되지 않았는데 “아들 오는 일”로 主體를 想定할 수 있다. 위의 用例들의 時制는 모두 發話時와 일치한다. 이는 統合用言의 動作類의 性格이 [+상태성]이기 때문이다.

위의 用例에 나타나는 “-거/어/나-”의 意味는 어떻게 究明되어야 할까? 먼저 이들 形態素가 缺如된 不定法 語形과의 比較에 依存해야 한다.

(11) “내 億劫에 顛倒想을 슬우샤 僧祇를 디나디 아니 하야서 法身을 언게 하 시 이다”(楞嚴3:111b-112a)

(12) “도 다 내 阿僧祇劫을 디나가 부터 드 의 야 號 를 釋迦牟尼라 하 리 라”(月釋 1:15a)

(13) “드 솔 히 멀 면 乞食하디 어렵고 하 갓가<sup>16)</sup> 보 면 조디 몸하리니 이 東山이 甚 히 맞 갑 다”(釋詳6:23b-24a)

(14) “내 오늘 이 衆이 느 의 야 가지 니피 업고 純히 正<sup>17)</sup> 호 實이 잇 다”(口訣文省略)(法華 1:173a)

(15) “내 부터와 하야 母子 드윈 後로 즐거부미 오늘 곤 하 니 업 다”(釋詳 11:2b)

(16) “사<sup>18)</sup> 르 미 목수미 無常호 거 시 라”(月釋 7:2a)

(17) “닐<sup>19)</sup> 굽 히 너 무 오 라 다”(月釋 7:2a)

主體가 3人稱인 점과 事件時가 發話時에 先行하거나 또는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거/어/나-” 插入形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確認法 形態素가 介入된 (1)~(10)用例의 대부분은 獨

15) 用例(1)은 같은 佛經을 底本으로 한 月印釋譜에는 다음과 같이 表現되어 있다.

내 本來 求<sup>20)</sup> 호 미 업 다 니 오늘 寶藏이 自然히 오 나 다(月釋 13:32b)

白과 같은 單獨의 場面에 쓰이기 때문에 通報行爲가 매우 一方의이었다. 그러나(11)~(17) 用例은 正常的의 對話의 場面에 나타나므로 그 通報行爲는 兩方의이다. “-거/어/나-”의 一方的의 通報特性은 이의 指示內容과 有關한 것이 아닌가 한다.

화자가 사태를 確信性 있게 파악하여 그것을 스스로 다짐할 때 “-거/어/나-”가 선택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原則法은 상대방을 타이르거나 일깨우는 것이었는데 確認法은 화자 스스로를 일깨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確認法 用例에 一方的의 通報機能이 절대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곳에서도 原則法에서와 같이 樣態副詞를 援用함으로써 性格을 明白히 해 보고자 한다. 用例(1)~(4)에는 “틀림없이” 등의 부사의 插入이 가능해 보인다. 이에 대응되는 (11)은 阿難이 부처에게 하는 말로 首楞嚴王의 과거의 行蹟을 客觀的으로 단순하게 陳述하는 것인데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부사의 插入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5)~(10)의 用例의 意味를 (11)~(17)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

(5)는 安樂國太子說話의 一節로서 “-거-”의 意味 究明에 援用되던 用例이다.<sup>16)</sup> 이 예는 安樂國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정상을 머리속에 그려 “시름 김거다”라고 한 것이니 “깊을 것이다”라는 假想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崔泰榮 1965). 意味 解釋에는 잘못이 없으나 構造的 樣相을 고려하지 못했다. 安樂國이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마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름이 깊은 것임을 스스로 確認하는 것이니 “기프리어다” 내지 “기프려다”와 같이 推測確認法의 形式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後述).<sup>17)</sup> 두 語形 가운데서 어느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話者(여기서는 목동인)에게 달려 있다. 이곳에서도 “틀림없이” 등의 부사의 插入이 가능하다. 한편 (12)는 (5)와 비교할 때 화자의 그런 태도를 파악할 수 없다. 오히려 “도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sup>18)</sup> “普光佛이 讚歎하야 니르샤디”와 같이 작자[譯者]의 情感에 가득찬 말에 의해 導入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은 (13), (7)은 (14), (8)은 (15), (9)는 (16), (10)은 (17)의 同根語幹 내지 同一語幹에 “-거-”가 붙은 것이다. 前者는 話者의 사태에 대한 태도가 매우 硬化되어 있어 틀림없이, 만드시” 등의 樣態性 부사를 補充하여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後者는 화자의 그러한 態度가 有形的의 要素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樣態 부사의 插入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어렵지 않은가 한다. (8)(9)(10)은 統合語幹의 動作類가 [+상태성]인데도 불구하고 [-상태성]의 動作類를 띠게 되어 완료적 의미를 표시하는 것은 “-거-”가 지닌 意味特性과 有關하지 않나 한다. (8)은 “걱정이 없어졌다”, (9)는 “50여년이 되었다”, (10)은 “오래되었다”

16) 崔泰榮(1965:125-129)에 설화내용이 要約되어 있다. 이 예는 月印千江之曲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安樂國이는 아버지를 보러 가니 어머니 몸 보아 시름 김거다(其 226, 月釋 8:87b)

17) [하리-다] 환경에서는 “거/어”의 선택이 不規則하므로 不不型에 所屬시켰다(高永根 1980). 따라서 “기프리어다, 기프려다”가 다 가능하다.

18) “-도다”의 情感的 意味에 대하여는 §4.2.7 참조.

로 해석된다.

“-거/어다”의 意味는 이와 系列關係를 이루고 있는, 統辭·意味上의 特性이 비슷한 不定法 “-(으)니-”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8) “네 아비 함마 주그니라”(月釋 17:21)

위의 用例는 아비의 使者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 主體는 3人稱으로서 “-거/어다”의 動詞 統合例 (1)~(4)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는 獨白 아닌 對話의 例이며 事件時도 發話時 直前이 아닌 먼 과거이거니와 화자의 사태에 대한 태도도 매우 단순하다는 점에서 “-거/어-”와는 그 기능과 意味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필자는 構造的 觀點에서 “-거/어-”와 “-과-”를 統合한 바 있다 (§3.1.1.). 使用面과 意味上의 側面에서 統合論을 展開해 볼까 한다.

(19) <오늘<sup>1</sup>사 스이 일과라>(月釋 7:9a)

(20) <내 이제 흰히 줄집과라>(口訣文省略) (法華 2:137b)

(21) “부테 大衆에 나를 받들기 부테 드외리라 니르시니 이 곤혼 法音을 듣조고 疑悔를 함마 덜와 이다”(法華 2:24a)

(22) “오늘 이 모든 大會와 또 내 다 함마 보습과이다”(口訣文省略) (法華 4:169a)

(23) “又기 못과라”(初朴上: 44a)

用例(19)는 難隨가 기뻐하며 스스로 하는 말로서 獨白이며, (20)은 長者가 아들이 火宅에서 나와서 네거리에 住함을 보고 찬탄하는 말로서 역시 獨白이다. (21)은 사리불이 부처 앞에서 偈로써 사되는 말로서 거의 一方的 通報行爲다. (22) 역시 一方的 特性이 강하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偈로써 사되는 말이다. (23)은 이발사와 주고 받은 말로서 典型的 對話의 場面에서 나타난 것이다. 獨白과 같은 單獨의 場面에서 나타나며 相關의 場面이라 하여도 一方的 通報行爲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앞의 “-거/어다”와 같다고 할 수 있다. 時制에 있어서도 共通性을 발견한다. (19)(21)(22)(23)은 [-상태성]의 用言에 統合된 것으로 事件時는 發話時 直前이다. (20)은 [+상태성]의 動作類를 表示하는 것으로 事件時와 發話時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라”의 意味는 이와 統辭의 特性이 같고 동시에 確認法 系統의 形態素가 缺如된 不定法 “-오/우라”와 비교하는 것이 좋다.

(24) “산것 주기며 허러 구짓는 두 業으로 報를 受호라”(月釋 21:56ab)

(25) “내 저비 이 싫 저기 受苦호미 이러호니 이런 因緣으로 道理를 得호라”(月釋 10:26a)

(26) “내 부텃 弟子 |로니 諸漏 업수를 得호야 죽사릿 큰 저부물 이제 다 버서나이다”(비서나오히 단)(釋詳 24:16b)

(27) “내 난 後로 曠心호 저 업소라”(月釋 21:216a)

대체로 對話와 같은 相關의 場面に 나타나고 時制에서는 統合用言이 [-상태성]을 띤

(24)(25)는 事件時가 發話時보다 훨씬 앞서 있다. (27)은 “없다”의 動作類의 特性 때문에 事件時는 發話時와 일치한다. (26)은 시간부사 “이제” 등으로 미루어 보면 事件時는 發話時 直前인 것으로 判斷된다. (19)를 (24)와 비교해 보면 前者는 화자가 오늘에야 비로소 틈을 얻게 되었음을 스스로 確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틀림없이” 등의 樣態부사의 插入이 가능하다. 後者는 그러한 要素가 缺如된 단순한 叙述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부사의 사용은 어려워 보인다. (21)(22)(23)도 (25)(26)과 비교하면 그런 意味가 파악된다. (20)은 統合用言이 [+상대성]을 띠고 있는데 (27)과 비교하면 화자가 發話時의 사태를 즐겁게 생각하여 이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뉘히”같은 부사를 화자의 이런 태도와 관련된 樣態 부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과-”가 使用 및 意味面에서도 “-거/어-”에 충분히 統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니라”는 “-거-”가 缺如된 “-(으)니라”와의 비교에 의해 意味가 究明되어야 한다. 兩者는 統辭構造面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28) 냇 위 안헤 고지 질로 펫고 붉나래 새 도로 늘어나라(原詩省略)(杜諺 8:34b)
- (29) 衡陽애 조릿 비디 다 能히 늘거니라(原詩省略)(杜諺 22:16b)
- (30) 神農도 마초매 아디 몬흐니라(原詩省略)(杜諺 15:8a)
- (31) 山林에 갈 자취 머디 아니흐니라(杜諺 15:8b)

用例가 모두 杜詩諺解에서 나타나므로 “-거-”가 缺如된 用例도 여기서 뽑았다. (28)(29)에 대한 설명은 이미 原則法을 論議하는 자리에서 詳說하였으므로 (§2.2.5.), 반복하지 않는다. (28)(29)가 사태를 確定的으로 파악하여 독자의 주의를 일깨운다고 하면 (30)(31)은 그런 사정이 介入되지 않은 單純한 叙述이라고 할 것이다.

“-언더”는 “-(으)너더”와 比較된다.

- (32) “도홀써 오닐날 果報 ]어 釋迦牟尼佛 弟子入 牢獄 보스반더”(月釋 23:82b)
- (33) “般若 거론 르디 이를 너르신더”(般若心經:8)

(32)는 獄卒이 目連에게 찬탄하며 하는 말이다. (33)과 比較하면 前者에는 화자의 確信性이 투영되어 있어 양태부사의 插入이 가능한데 後者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2人稱 疑問法과 非2人稱疑問法에서도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意味가 究明되어야 한다.

- (34) “닐헛 스시에 네 快樂을 전쫓흐안다”(釋詳 24:28ab)
- (35) “하닐 마르치시며 짜 마르치샤를 아란다 모르논다”(金三 2:60a)
- (36) “네 엇디 안다”(月釋 23:74a)

“-안다”는 화자가 청자에게 確信性 있는 답변을 구할 때 쓰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34)는 왕이 使者를 시켜 善容에게 묻는 말이다. 선용의 답변이 “보도 몰흐며 듣도 몰흐거니 므스기 快樂호려킬릿고”와 같이 反語形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선용에 대한 물음이

어느 정도 硬化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5)는 (36)과 비교할 때 時制上的 差異는 전혀 없다. (34)와 함께 完了的 意味가 파악되는 것은 “-어-”에 있지 않고 疑問法 構成 “-니다”에 있다. (35)의 “모르는다”가 “\*몰란다”가 안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화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疑問法에 나타나는 “-거/어-”는 感動法의 “-스-”과 비슷한 점이 많다(後述).

- (37) “羹에 네 소니 레어너”(口訣文省略)(內訓 1:18a)  
 (38) “부네 涅槃하시니여”(釋詳 23:20b)  
 (39) <엇던 절초로 이세 오나뇨>(法華 2:239a)  
 (40) “이 智慧 업슨 比丘 | 어드러서 오뇨”(釋詳 19:30b)

用例 (37)(39)는 非2人稱 疑問法의 “-거/어-” 統合例다. (37)은 對話例로서 (38)과 비교 할때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점을 구할 수밖에 없으며 (39)는 獨白의 例로서 (40)이 比較의 對象이 된다. 주의할 것은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의문법의 “-거/어-” 統合例가 대부분 獨白에서 나타나는 점이다. 우리는 說明法에서 그런 경향을 발견했는데 이는 “-거/어-”의 意味와 직접 관련된다.

다음은 命令法에 나타나는 確認法이다.

- (41) “比丘들하 부텨 양즈를 보아라”(釋詳 23:13a)  
 (42) “너희들히 至極호 誠心으로 내 紫磨黃金色身을 보라”(釋詳 23:11b)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의 硬化에서 차이를 찾을 수밖에 없다. 현대어는 “하라” 形態가 間接命令으로 주로 쓰이나(高永根 1976), 중세어에서는 “호라” 形態가 直接命令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화자의 態도와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接續의 連結語尾에 나타나는 用例다.

- (43) “本來 제 귀음 얼거니 엇메 모로매 뫼리오”(口訣文省略)(金三 2:65b)  
 (44) “네 아드리 孝道호고 허물 업스니 어드리 내디료”(月釋 2:6a)

(44)는 (43)의 “-거니”의 “-거-” 缺如形이다. “-거니”는 마땅한 例를 아직 찾지 못했다. 두 例를 비교해 볼때 화자의 사태에 대한 態도의 硬化에서 “-거-”의 意味를 찾을 수밖에 없다.

- (45) 가즐비건뎌 사르미 바비 너다가 机를 보고 도주긴가 너거며 모던 귀쳐신가 너겨 두리여 헤든  
 다가…(釋詳 11:34b)  
 (46) 마장 殷重히 너기스분며 奇特히 너기습는 막수물 니르와다(月釋 10:45b)

用例(45)는 接續의 “-며”가 “-어-”를 取한 것인데 “-어-”가 缺如된 (46)의 “너기스분며”와 비교된다. 둘다 地文인데 작자의 事態 내지 命題에 대한 태도와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다.

冠形形에서도 “-거/어/나-”가 缺如된 語形과의 比較에 依支해야 한다.

- (47) 아들 봄부터 오난 디 하마 스물히니(口訣文省略)(法華 2:245b)
- (48) 그제로 오신 디 손지 오라디 물거지든(口訣文省略)(法華 5:119ab)
- (49) 아드리 宰相 드외언 디 三年이로터(口訣文省略)(內訓 3:25-26)
- (50) 내 부터와 하야 母子 드윈 後로(月釋 21:7a)
- (51) 그 中에 홍 長者는 우리 父母 오라건 아로리러니(月釋 10:24b)
- (52) 디나건 오란 劫에...(月釋 1:51b)
- (53) 四空處 | 業果色 업수물 아랄디로다(月釋 1:36b)
- (54) 보미 이 봄 아년 둘 반드기 아를 디라 하시니(楞嚴 2:74b)

用例(47)은 (48)과, (49)는 (50)과, (51)은 (52)와, (53)은 (54)와 각각 비교된다. “-거/어/나-” 插入形은 缺如形에 比해 硬化된 화자의 태도가 엿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 3.2.2. 推測法

推測法이란 推測法 “-(으)리-”가 先·後行된, 圖表的 實在形 “하리어다/하려다, 하야리로다, 하거리랴다; 하려노, 하야리아, 하알까; 하리어니, 하리어며, 하야리마르노”을 가리킨다.

- (1) <하마 비 오려다>(月釋 10:85b)
- (2) <(如來) 涅槃에 드로려 하시니 이리드록 설뿐져 世間엿 누니 업스려다(釋詳 11:11b)
- (3) “닐하 오늬나래 덕시라 마로리어다”(月釋 8:102a)
- (4) “아가 大慈悲 우니는 鴛鴦鳥와 功德修行호는 이네 물과 成等正覺 나래사 반드기 마조 보리어 나”(月釋 8:101b)
- (5) “그리내 머리서 즈비 오난마를 如來人 舍利는 물 나오리어다”(釋詳 23:54b)
- (6) “내 조할 헝더갈 닷가 일업는 道理를 求호노니 죽사릿 因緣을 든디 물 호려다”(月釋1:11b)

앞의 “-거/어/나다”와 같이 “-(으)리어다/--(으)려다”에서도 대부분 獨白 내지 一方的 陳述에서 나타나고 있다. (1)은 現代語의 “오렷다”의 直接的 遞及形으로서 비 올 것을 예측·확인하는 일반적 獨白表現이다. (2)는 중생들이 부처의 열반소식을 듣고 獨白하는 것이다. (3)은 원앙부인이 長者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의 一節로서 陳述行爲는 거의 一方的이다. (4)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 答변을 전제하지 않은 一方的 通報行爲다. (5)는 拘尸 國王이 偈를 지어 신하에게 答答하는 말로서 一方的 獨白의 性格이 매우 짙다. 이 텍스트의 前後가 呼號體로 되어 있는 점은 이 말의 獨白의 性格을 잘 뒷받침한다. (6)은 典型的 對話 속의 用例로서 전해가 구이하게 하는 말이다. 위의 用例의 주체는 대부분 非1人稱이다(~~~ 참조). (3)은 主體가 2人稱이고 (~~~ 참조), (4)는 원앙조와 화자 자신의 “몸”을 뭉뚱그린 것이 主體로 간주된다(~~~ 참조). (5)(6)은 主體가 화자로 간주되는데 화자 標識의 “-오/우-”가 介入된 데 연유하지 않나 한다. (5)는 “\*나오오리어다”의 축약형이고 (6)은 “-오-”의 插入形으로 볼 수 있는 例다(허용1975:286). 事件時는 發話時에 後行할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다. (2)와 같이 [+상태성]의 動作類에 統合될 때는 發話時와 일치하는 일이 많아 보인다.

위에 나타나는 確認法은 “-거/어-”가 缺如된 推測法의 用例과 比較함으로써 그 意味가 究明되어야 한다.

- (7) “如來 오닐 밤 中에 無餘涅槃에 들리라”(釋詳 13:34a)
- (8) 모디 더룬 가켓디 마로리라(蒙法:26a)
- (9) “나웃…五百齋 아니 하단디면…地獄에 드로리라”(月釋 23:75b)

“-거/어-”가 缺如된 推測法의 語形 가운데서 對話, 곧 兩方의 陳述의 例를 뽑아 보았다. (1)(4)는 主體가 3人稱인 점에서 (7)과 공통된다. 前者는 發話時 이후에 일어날 일을 화자가 確信을 가지고 推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는 “틀림없이” 등의 양태부사의 插入이 가능하다. (4)에는 “반드기”가 들어 있어 그러한 意味의 설정이 妥當함을 立證하고 있다. (7)은 日月燈明佛이 대중에게 確定的인 發話時 이후의 일을 거의 一方的으로 進술하는 것이다. “몰흐리다” 등의 語形이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거/어”가 缺如되어 있다. 이 형태소의 선택여부는 어디까지나 화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3)과 (8)은 主體가 2人稱인 점과 “-오/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兩者가 다 화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前者는 화자의 確信性 있는 태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6)은 (9)와 主體가 1人稱인 점에서 共通되는데 前者에는 화자의 確信性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가 쓰였으나 後者에는 그러한 태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가 缺如되었고 “반드시”와 같은 樣態 부사의 補充도 또한 許容되지 않는다.

“-어리로다”와 “-거리랴다”는 用例가 하나뿐이나, “-거/어-”가 缺如된 “-리로다, -리랴다”가 存在하므로 意味 파악이 가능하다.

- (10) 眞實로 그스기 化ᄒ시다 닐어리로다(月釋 13:44b)
- (11) 莊ᄒᄒ 양지 머ᄒ디 아니호미 돈는 탈 마ᄒᄒ 전초로 가졸비니 몰흐리로다(口訣文省略)(楞嚴 2:5b)
- (12) 살어리 살어리랴다 靑山에 살어리랴다(樂章歌詞, 靑山別曲)
- (13) 그딴 나그내를 스랑타 아니 하던들 그뎀 나래 쏘 시르물 더으리랴다(原詩省略)(杜諺 15:31b)

(10)(11)은 둘다 협주의 地文에 나타난다. (10)이 화자의 硬化된 사태파악과 관련되어 있다면 (11)은 그것이 缺如된 사태파악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도 (13)과 비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0)(12)에는 “틀림없이” 등의 樣態性 부사의 插入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 (으)려뇨, -어리아, -얼까”는 “-어-”가 缺如된 “\*(으)리…뇨, -(으)리아, -(으)리까”와의 比較에 依存해야 한다. “\*(으)리…뇨”는 실제로는 “-리오”로 나타난다(前述).

- (14) <늘너브리 무리아 ᄒ리너 뉘아 能히 對答ᄒ려뇨>(釋詳 13:15a)
- (15) “네 브즈러니 세 머늘 請ᄒ거니 어드리 아니 니르료”(釋詳 13:46a)
- (16) <어루 크게 맛나다 아니 닐어리여>(口訣文省略)(金三 3:5a)
- (17) “ᄒᄒ마 주글 내어니 子孫을 議論ᄒ리여”(月釋 1:7a)



(18) “어더 보수받까”(釋詳 24:43b)

(19) 天縱之才를 그러샤 아수볼까(龍歌 43)

用例(18)만 除外하고는 모두 修辭疑問으로 쓰였다. (14)와 (15), (16)과 (17)을 비교해 보면 前者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강한 確信感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8)은 그러한 確信감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다.

“- (으)리어니, - (으)리어며, - 어리마르논”은 “- (으)리니, - (으)리며, \* - (으)리마르논”과의 비교에 依存해야 한다.

(20) 三輪이 부여 괴와함면 三界에 나리어니 罪福이 잇메 내게 보트리오(南明上: 63a)

(21) 이 善女人이 …女人 잇는 世界에 다시 나디 아니호리니 호닐며 쯔 女身호미썩너(月釋 21:86b)

(22) 프히여본 이리 이서도 고죽홀 모수모로 더 부터를 念호야 恭敬호수본면 다 버서나리어며…버서나리라(釋詳 9:24-25)

(23) 불마면 보미 업스리며(楞嚴 3:94ab)

(20)을 (21)과 비교해 보면 화자의 사태에 대한 確信性和 관련되어 있으며 (22)도 (23)을 고려하면 그런 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태부사의 補充으로써 意味의 妥當性を 검증할 수 있다.

**3.3.0.** 中世語의 確認法을 現代語의 그것과 관련시키면서 形態論的 觀點에서 單位를 劃定하고 使用面의 制約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究明해 보았다. 要點을 정리하고 이 問題를 다룬 既往의 業績들의 所論을 評價해 보기로 한다.

### 3.3.1.

1. “-거/어/나-”는 統合的으로나 系列的으로 相關關係를 맺고 있는 환경에서만 確認法으로 기능하며 確認法은 不定法과 推測法을 바탕으로 成立된다. 現代語는 直說法과 推測法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記述한 바 있다(高永根 1965:§2.5.).

2. 確認法은 單獨的 場面과 一方的 通報機能이 우세한 相關的 場面에서 많이 나타난다.

3. 確認法의 事件時는, 不定法의 경우는 統合用言의 動作類에 따라 決定되고 推測法에서는 推測法 “- (으)리-”에 영향을 받아 發話時 이후가 될 적이 많다.

4. 確認法은 화자가 사태를 確信性 있게 파악하여 스스로 다지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介入될 때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3.3.2.** 우리는 앞에서 “-거/어/나-”를 둘러 싸고 強調 및 強勢, 假想, 完了의 세 가지 解釋이 試圖되어 왔다고 했다(§3.3.1.). 이들 解釋에서 看取되는 한결같은 잘못된 統合的으로나 系列的으로 하등의 相關性이 없는, 단순한 用言標識에 지나지 않는 “거/어/나”를

19) 許雄(1955:163)에는 “-거니”를 중심으로 強調의 意味가 부여되어 있고, 劉昌惇(1963)에는 과거나 假想이 아닌 強調일 뿐이라고 하였다. 허용(1975:923-956)에는 우리의 感動法과 합쳐서 강조·명탄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有意的單位로 認定한 것이다.

“-거/어-”를 強勢로 解釋한 것은 河野六郎(1950)이 가장 包括的이다.<sup>19)</sup> 그는 史的 觀點에서 “-어-”의 起源을 “-거-”에 두고 그것을 *intensive stem*이라 부르면서 “-거-”가 缺如된 語形과의 비교를 통하여 強勢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거-”에 의해 表示되는 과거와 같은 時相的 意味는 動詞語幹의 意味에 연유하는 것임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統合的으로나 系列的으로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거든” 등의 分析을 深化시킨 것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거/어-”에 假想의 意味를 준것은 李崇寧(1961:193-195, 233-243)이다.<sup>20)</sup> 그는 連結語尾에 나타나는 “-거/어-”를 假想法으로 파악하고 이를 終結語尾에 擴大·適用하였다. 假想이란 連結語尾 자체나 “-하리어다, -하려다”와 같이 “-(으)리-”와의 統合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잘못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거/어-”를 時制 關聯의 要素로 본 것은 李承旭(1967)과 나진석(1971:257-280)이다. 前者는 “-거/어-”를 未完了相을 표시한다는 回想法의 “-더-”와의 對立關係에서 完了相으로 처리하였다. 後者는 현대어의 確認法 “-거-”와 관련을 지으면서 끝남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所論에서 주목할 것은 필자가 確認法의 形態素로 統合한 “-과-”가 “-거-”系統의 語形 일람표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完了나 끝남이란 河野六郎(1950)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動作類의 어떠함에 따라 決定되는 것으로 “-거/어-”의 屬性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要件대 지금까지의 이 方面에 대한 연구가 많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큰 成果가 없었던 것은 形態의 表面上의 同一性에 얽매어 구조적 相關性을 올바르게 認識하지 못한 데 그 原因이 있다. 또 現代語와의 관련성이 거의 고려되지 못했던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立脚할 때 종래에 意見이 구구하던 “-거/어/나-”는 確認法表示의 形態素라 함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3.3.3. 不定法과 推測法을 바탕으로 說明法, 疑問法, 命令法, 少數의 接續 連結語尾 및 冠形形에 걸쳐 분포되어 있던 確認法體系가 說明法에서만 命脈을 유지하고 있는 現代語의 體系에 이르는 變遷과정은 다루지 않는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現代語의 “-것/엇-”의 生成 절차이다. 中世語는 “-거/어/나-”인데 오늘날에 와서 “-것/엇-”이 된 것은 確認法과 意味機能에 있어 共有部分이 많은 感動法 “-웃-/-웃-, -스-”(後述)과의 語形上의 混淆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杜詩諺解의 다음 例는 바로 그러한 現象의 萌芽로 보인다.

(24) 牛斗星 北窓오물 혼갓 잇니 흐것다(21:42a)

構造的 觀點에 선다면 (24)의 형태 “-것-”은 確認法 “-거-”가 感動法 “-웃-/-웃-, -스-”을 바탕으로 成立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 崔泰榮(1965)와 安秉禧(1967:210)도 비슷한 觀點에서 假想으로 처리하였다.

#### IV. 感 動 法

4.1.0. 現代語의 感嘆法 語尾에는 “-구나, -어라” 등의 몇 系列이 있어 그 意味를 밝히고 相關關係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sup>1)</sup> 中世語도 現代語 못지 않은 複雜性을 띠고 있어서 그것은 體系 있게 설명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테면 허웅(1975)에는 「강조·영탄법」이라 하여 일곱 系列의 語形이 提示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形態論的 配慮를 深化시키고 使用面의 制約과 意味上의 特殊性을 밝힐 수단 있다면 복잡해 보이는 이들 語尾의 모습이 더 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이곳에서는 허웅(1975)의 「강조·영탄법」 가운데서 “入”系의 語尾를 대상으로 形態論的 分析을 시도하고 意味上의 特殊性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入”系의 이른바 「강조·영탄법」은 “-웃-, -뚫-” 系列과 “-入-” 系列로 大別된다. 單位確立에 援用되는 語形은 “-ㅎ-”로써 대신하기로 한다.<sup>2)</sup>

4.1.1. 먼저 “-웃-, -뚫-” 系列이 나타나는 語形을 對象으로 分析을 試圖하기로 한다.

- (1) ㅎ샷다, ㅎ샤스이다.
- (2) ㅎ뚫다, ㅎ노소이다, ㅎ노소니<sup>1)</sup>; ㅎ노소라, ㅎ노소니<sup>2)</sup>
- (3) ㅎ리샷다, ㅎ리샤스이다
- (4a) ㅎ닷다, ㅎ다스이다; ㅎ다소라, ㅎ다소니
- (4b) ㅎ리랏다, ㅎ리라스이다
- (5) ㅎ과소라
- (6a) ㅎ도다, ㅎ도소이다<sup>1)</sup>, ㅎ도소녀, ㅎ도소니; ㅎ도소이다<sup>2)</sup>
- (6b) ㅎ리로다, ㅎ리로소이다<sup>1)</sup>, ㅎ리로소녀, ㅎ리로소니잇가, ㅎ리로소니; ㅎ리로쌍다, ㅎ리로소이다<sup>2)</sup>

(1)의 “-샷다”의 “샤”가 尊敬法의 先語末語尾 “-(으)시-”와 話者 標識의 先語末語尾 “-오/우-” (앞으로 “-오/우-”라 略稱함)의 統合形이란 사실은 일찍부터 指摘되어 왔다(李崇寧 1961a). 그렇다면 “-(으)샷다”의 “-(으)샤-”는 母音 앞에서 實現되는 “(으)시”의 交替形임을 確認할 수 있다.<sup>3)</sup> (1)의 語形에서 “-(으)샤-”를 除去하면 “-웃-”이 析出된다. 이 形態素는 (2)(3)의 語形에서도 나타난다(後述). (1)의 또 하나의 語形 “-샤스이다”는 “-(으)샷-”에 분간성을 띤 ㅎ쇼셔體의 說明法 標識 “-이-”가 統合됨으로써 媒介母音 “으”가 들어간 것이다.<sup>4)</sup> “ㅎ샤스이다”와 함께 下降의 二重母音의 모습으로 음라우트된 “ㅎ샤시이다”가

1) 現代語의 感嘆法의 語形 確立과 이에 대한 意味 說明은 高永根(1974:§2.3;1976:§2.3.)참조.

2) 具體的 用例은 허웅(1975:974-976) 참조.

3) 安秉禧(1963:209;1967:207)에 의하면 “-(으)시-”와 “-(으)샤-”의 交替의 條件을 音韻論的인 面에 두고 있다. 前者는 後行語尾의 頭音이 子音일 때, 後者는 “-아/어-, -오/우터-, -오/우르-, -오/우니-, -오/우르” 등의 母音語尾 앞에서 實現되는 것이다. “-(으)샤-” 交替形을 總稱에는 “-(으)시-”가 “-아/어”등과 통합되면 “-(으)샤-”로 變異되는 것으로 說明해 왔다(허웅 1955, 1958).

4) (1)의 語形에 대한 이러한 分析方式은 (2)(3)의 語形과 함께 이미 安秉禧(1967:215)에서 示唆된 바 있다.

存在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허용 1975:657, 661).

(2)의 “ㅎ눗다”의 “-눗다”는 ㅎ라體의 直說說明法 語形 “ㅎ눗다”의 “-눗다”와 比較하면 (1)에서 보았던 形態素 “-웃-”이 析出된다. 이곳의 “-ㄴ-”은 “-ㄴ-”의 音韻論的 異形態로 母音形態素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눗다”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으로 “-눗도다”가 있다. 보편적인 語形이 아니므로 “-눗다”의 隨意變形으로 처리한다.<sup>5)</sup> 그런데 (2)에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析出되지 않는 語形이 있다.

“ㅎ노소이다”는 (1)의 “ㅎ샤소이다”를 참조하면 “ㅎ눗다”의 ㅎ쇼셔體임을 알 수 있다. “\*ㅎ노소이다”로 實現되어야 할 것인데 “눗”이 媒介母音 “오”를 同化시킴으로써 “ㅎ노소이다”가 된 것이다(安秉禧 1967:215). “ㅎ노소니”도 “\*ㅎ노소니”였던 것인데 앞서 말한 同化規則의 適用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2)의 뒷뉘음 “ㅎ노소라, ㅎ노소니”는 앞뉘음의 “ㅎ눗다” 등의 “-웃-”에 “-오/우-”가 붙은 것이다(安秉禧 1967:216). 文證되지는 않지만 “ㅎ노소라”의 ㅎ쇼셔體 “\*ㅎ노소이다”를 想定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ㅎ눗다”의 ㅎ쇼셔體와 그 形式이 같다. “ㅎ노소니”는 “눗”에 “-오/우-”가 통합된 것인데 “ㅎ노소니”와 그 形式이 같아졌다. 兩者는 統辭構造에 의해서만 그 기능이 변별될 수 있다(後述).

(3)의 語形 “ㅎ리샷다, ㅎ리샤소이다”는 (1)의 語形을 기반으로 形成된 것이다. (1)에 나타나는 “-(으)샷-”이 하나의 單位로 굳어짐<sup>6)</sup>에 따라 그 위에 推測法의 先語末語尾 “-(으)리-”가 붙은 것이다. “-(으)룻-”내지 “-(으)리웃-”으로 나타날 것이 “-(으)리샷-”으로 實現된 것으로 해석한다. “ㅎ리샤소이다”는 “ㅎ리샷다”의 ㅎ쇼셔體이다. (2)에 나타나는 “ㅎ노소니” (<ㅎ노소니)의 存在에 의하여 “\*ㅎ리샤소니”를 假想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오/우-”가 붙은 “ㅎ샤소라, ㅎ샤소이다, ㅎ샤소니”의 語形은 假想할 수 없다. “-(으)샤-”와, “-다, -니”에 先行하는 “-오/우-”는 서로 排他的이기 때문이다(허용 1958, 1975:762).

(4)의 語形들은 (1)(2)의 語形들에 類推하여 설명할 수 있다.

(4a)의 “ㅎ닷다”의 “-닷다”는 回想法의 先語末語尾 “-더-”에 앞의 (1)(2)에서 析出한 “-웃-”이 統合된 것이다(高永根 1978). “ㅎ다소이다”는 “ㅎ닷다”의 ㅎ쇼셔體이다. “ㅎ노소니”를 참조하면 우리는 文證되지 않은 “\*ㅎ다소니”를 想定할 수 있다. 뒷뉘음의 “ㅎ다소라, ㅎ다소니”는 “-닷-”에 “-오/우-”가 統合된 것이다. 文證되지는 않지만 “ㅎ다소라”의 ㅎ쇼셔體 “\*하다소이다”를 想定할 수 있다. 드물지만 “-뫼더-”가 나타나는 일이 있다. 이는 “-닷-”의 한 隨意變形으로 간주할 수 있다(安秉禧 1967:216)(後述).

5) 허용(1975:945)에는 “-눗-”과 “-도-”의 合成形으로 간주하고 있다. “눗”에 다시 “뫼”이 붙은 것을 감동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6) 허용(1975:952)에 의하면 “煩惱ㅎ시리샤이다”에 “-(으)시-”가 나타나는 이유를 “[-샤-]가 영탄의 표시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시 [-으시-]를 겹쳐 주체 높임을 분명히 표현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b)의 “하리랏다”의 “-랏-”은 (4a)의 “-랏-”이 推測法의 先語末語尾 “-(으)리-” 아래서 交替된 것으로 制約條件은 形態論의이다. “하리라스이다”는 “하리랏다”의 ㅎ쇼셔體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4a)의 “하다스니”에 併行하는 “\*하리라스니”를 再構成할 수 있다. (4a)에 類推시키면 “-오/우-”가 統合된 “\*하리라소라, \*하리라소이다, \*하리라소니”의 語形을 假想할 수 있다.

(5)의 “하과소라”는 (2)의 “하노소라”와 (4a)의 “하다소라”를 고려하면 “-꽂-”에 “-오/우-”가 붙은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安秉禧 1967:216).<sup>7)</sup> 이 語形의 ㅎ쇼셔體 “하과소이다”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서 “하눗다, 하닷다; 하노소이다(<\*하노스이다), 하다스이다”에 併行하는 “\*하꽂다, \*하과소이다”를 생각할 수 있다. 연결어미에서는 “-과스니, -과소니” 대신 “\*-거스니, \*-거소니”가 기대된다. 接續連語語尾에서의 화자 標識의 語形은 “-가니”이기 때문이다(§3.1.1.).

(6)의 (a)(b)는 (4)의 그것에 併行된다. (6a)의 “하도다”와 “하도소이다”<sup>1)</sup>은 尊卑法의 差異만 認識될 뿐이다. 前者는 ㅎ라體, 後者는 ㅎ쇼셔體이다. “하도소이다”의 “-도소이다”는 (2)의 “하노소이다”와 같이 “-똥-”과 “-오이다”로 分析된다. “-오이다”는 “-으이다”가 先行하는 “-똥-”에 同化되어 實現된 것이다. “-도-”는 子音語尾 앞에서, “-똥-”은 母音語尾 앞에서 나타나므로 制約條件은 音韻論의이다.<sup>8)</sup> “-똥-, -똥-”과는 달리 “스”이 子音 “ㄷ”앞에서 脫落하여 불규칙적으로 交替되고 있다. “-똥-”이 子音 앞에서 그대로 維持된 “-똥다”의 用例가 발견됨<sup>9)</sup>은 “-도다”의 “-도-”가 “-똥-”과 交替形임을 잘 뒷받침한다. 의미상으로 볼 때도 “-똥다”는 “-도다”의 수의변형으로 처리된다(後述).

ㅎ쇼셔體의 說明法에서 確認된 “-똥-”은 ㅎ라體와 ㅎ쇼셔體의 疑問法<sup>10)</sup>에서도 나타난다. “하도소녀”는 ㅎ라體의 疑問法으로서 “\*하도소녀”가 同化規則의 適用을 받아 結果된 語形이다. 곧 “-똥-”에 “-으녀”가 統合된 것이다. (6b)의 “하리로소니잇가”를 참조하면 “하도소녀”의 ㅎ쇼셔體形 “\*하도소니잇가 (<\*하도소니잇가)”를 想定할 수 있다. “하도소니”는 “-똥-”에 “-으니”가 붙어 同化된 것으로 解釋한다.

(6a)의 뒷뉘음 “하도소이다”<sup>2)</sup>는 統辭上의 特徵(後述)을 고려하면 “-똥-”에 “-오/우-”가 統合된 것이다. “하도다”에 이런 語形이 實在함은 (2)(4)에서 “\*하노소이다, \*하다소이다”를 想定한 妥當性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한편 “하도소이다”의 ㅎ라體 “\*하도소라”의 설정

7) “-과-”의 기능을 허용(1962, 1963:248-250, 1975:796-798)에서는 「기정법」이라 하여 “-(으)니-”와 對立시키고 있으나 필자는 強調의 先語末語尾로 처리되어 온 “-거/어-”와 對立시키고자 한다. 그러던 “-과-”는 “-거/어-”에 話者標識의 “-오/우-”가 통합된 것이고 “-꽂-”은 “-거/어-”에 “-웃-”이 통합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3.1.1. 및 §3.2.1. 참조.

8) “-똥-”의 析出은 安秉禧(1967:216)에서 試圖된 일이 있다.

9) “-똥다, -똥더라”의 用例는 허용(1975:948)참조.

10) 中世語의 疑問法은 安秉禧(1965b)에 의해 體系的 叙述이 試圖되었고 허용(1975:495-516)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이 배풀어져 있다.

이 가능하다. 이러한 妥當性은 (2)(4)(5)에서 “호노소라, 호다소라, 호과소라”가 實在함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이곳에서도 “호노소니?, 호다소니”에 대응하는 “-오/우-” 統合形 “\*호도소니”의 설정이 가능하다.

(6b)의 語形은 (4b)의 그것에 併行한다. “-도다”가 推測法의 先語末語尾 “-(으)리-”와 統合하여 實現된 語形이다. “호리로소이다”<sup>11)</sup>은 “\*호리로스이다”에서, “호리로소녀”는 “\*호리로스녀”에서, “호리소니잇가”는 “\*호리로소니잇가”에서, “호리로소니”는 “\*호리로스니”에서 同化規則이 適用되어 각각 나타난 것이다. “호리로소이다”는 “-오/우-”가 介在된 語形이다. 이는 統辭論의 側面에서 立證된다(後述). 여기에서도 우리는 “-오/우-”가 介在한 “\*호리로소라”와 “\*호리로소니”를 假想할 수 있다.

(6b)에서 特記할 것은 호야씨體의 語形이 實在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煩雜을 피하려는 意圖에서 文證되는 例가 稀少한 호야씨體에 대한 語形을 일일이 再構成하여 提示하지 않았으나<sup>11)</sup> 다음 例는 “\*호리로소라”의 호야씨體形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어제 그딛 마를 드로니 ㅅ수매 來往호야 넋디 물호리로싱다(昨聞爾言호니 往來方寸間호야 不能忘이로다) (內訓 2下 : 37a)

이는 帝가 后에게 하는 말로 代名詞 “그디”<sup>12)</sup>와, 帝와 后 사이의 尊卑關係를 고려할 때 호야씨體임이 틀림없다.<sup>13)</sup> 主體가 話者 자신[帝]임은 이 語形이 “\*호리로소라”의 호야씨體로 쓰인 것임을 말해 준다<sup>14)</sup>. 이와 함께 우리는 “호리로다”의 호야씨體形 “\*호리로싱다”는 “\*호리로싱다”가 同化規則에 의해서 實現되는 것임도 假定할 수 있다.

#### 4.1.2. “-웃-, -똥-”系列에 이어 “-ㅅ-”系列의 語形을 검토하기로 한다.

(8) 호소라, 호소이다, 호소니

(9) 호스다, 호눅스다

(10) 호야스타

(8)의 “호소라”는 이와 공통된 意味를 表示하는 不定法<sup>15)</sup>의 “호라”와 比較하면 “-ㅅ-”이 析出된다. “호소이다”는 “호소라”의 호쇼씨體 語形인데 不定法の “호이다”와 比較하면 역시 “-ㅅ-”이 識別된다. “호소니”도 不定法の “호니”를 고려하면 “-ㅅ-”을 얻는다. (8)의 語形은 “-ㅅ-”과 “-오/우-”를 先接한 不定法임을 알 수 있다.

11) 中世語의 尊卑法이 호리體, 호야씨體, 호쇼씨體의 三等分으로 되어 있다 함은 이미 安秉禧(1965a)에서 지적되었다. 그리고 각 文體法과 叙法에 따른 호야씨體의 再構成은 金忠會(1972)에 의해 周到하게 시도된 바 있다.

12) 中世語의 “그디, 그피”는 호야씨體와 呼應하는 代名詞로 알려져 있다(安秉禧 1965a)

13) 金忠會(1972:62)에는 文證되지 않은 호야씨體의 語形으로 再構成되어 있다. 한편 허웅(1975:666, 947)에는 호쇼씨體의 形式이 줄어든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14) 口訣文의 語尾가 “-로다”인 점을 들어 이 語形을 “호리로다”의 호야씨體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口訣은 漢文法의 관점에서 懸吐된 것이므로 口訣로써 번역문의 文法的 的의를 구명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5) 中世語의 不定法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語形(8)의 時相上의 特性은 (1)의 “-웃다”의 그것과 同一하다(後述). 이런 점에 근거하여 우리는 “-(으)샤-”가 消去된 語形 “\*웃다”를 假定할 수 있고 이의 聲소체體 “\*호스이다”를 想定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웃았다, 웃샤스이다” 뿐이다. 補充法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語形은 (2)(4)의 “웃는다, 웃었다”와 意味上의 對立을 이룬다. 또 “\*호노스니(>호노소니), \*웃다스니”에 對立하는 “\*호스니”의 形成을 假想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방식을 따르면 “-웃다”의 “오/우” 統合形은 “\*호소라, \*호소이다, \*호소니”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2)(4)(6)과도 均衡 있는 對立關係를 形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語形은, 앞에서 確認한 바와 같이, “웃소라, 웃소이다. 웃소니”와 같다. 앞의 “웃았다”와 같이 補充法的 形成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9)에서도 “-스-”이 確認된다. “웃는다”는 이와 共通된 意味를 띤 不定法의 2人稱疑問法(安秉禧 1965b) “호다”와 比較하면 “스”가 析出된다. 그러나 “-는다”는 분간성을 띠고 있으므로 “스”의 “으”는 어미에 소속된다. “웃는다스”도 直說法的의 2人稱 疑問法 “웃는다”와 比較하면 역시 “-스-”이 析出된다.

“-스-”은 命令法에도 確認된다. (10)의 語形이 命令法에 나타난 “-스-”의 보기다. 명령법 어미 “-(으)라”가 分간성을 띠고 있으므로 “-스-”만이 析出된다. “-스-”에 先行하는 “-아-”는 다른 기능을 표시하는 형태소로서 “-스-”과는 직접 關係가 없다.<sup>16)</sup> 지금 析出한 “-스-”이 앞서 識別한 “-웃-, -웃-”과 構造上으로 어떠한 關係에 놓여 있는가는 意味의 側面이 뒷받침되어야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後述).

4.1.3. 지금까지 살펴본 “-웃-, -웃-” 및 “-스-”이 介在된 語形과 그것의 “-오/우-” 統

구분 語末語尾 叙法	“웃, 웃, 스” 統合形				“웃, 웃, 스”과 “-오/우-” 統合形		
	說明法	疑問法	命令法	接續	說明法	疑問法	接續
不定法 (1)	*웃다(웃았다) *호스이다(웃샤스 이다)		웃야스라	*호스니	*호소라(웃소라) *호소이다(웃소이 다)	웃는다	*호소니 (웃소니)
直說法	웃는다, *호노스 이다(호노소이 다)			*호노스 니(호노 소니 <sup>1)</sup> )	호노소라 *호노소이다	호노는다	호노소 니 <sup>2)</sup>
推測法 (1)	웃리샷다, *웃리 샤스이다			*웃리샤 스니			
回想法	웃었다, 웃다스이 다			*웃다스 니	웃다소라 *웃다스이다		*웃다스 니
推測回想法	웃리랏다 *웃리라스이다			*웃리라 스니	*웃리라소라 *웃리라소이다		*웃리라 소니

16) 이는 中世語 先語末語尾 “-거/어-”의 “-어-”이다. 이에 대해서는 §3.1.1. 및 §3.2.1. 참조.

確 認 法	* <u>ㅎ쌏다</u> * <u>ㅎ과스이다</u>				ㅎ과소라 * <u>ㅎ과스이다</u>	
不定法 (2)	ㅎ도다, * <u>ㅎ도스 이다</u> ( <u>ㅎ도소이 다</u> <sup>1)</sup> )	* <u>ㅎ도스너</u> ( <u>ㅎ도소 너</u> ) * <u>ㅎ도스니잇가</u> (* <u>ㅎ도소니잇가</u> )		* <u>ㅎ도스 니</u> ( <u>ㅎ도 소니</u> )	* <u>ㅎ도소라</u> <u>ㅎ도소이다</u> <sup>2)</sup>	* <u>ㅎ도소 니</u>
推測法 (2)	ㅎ리로다 * <u>ㅎ리로쌍다</u> <u>ㅎ리로소이다</u> <sup>1)</sup>	* <u>ㅎ리로스너</u> ( <u>ㅎ리로소너</u> ) * <u>ㅎ리로스니잇가</u> ( <u>ㅎ리로소니잇가</u> )		ㅎ리로 소니	* <u>ㅎ리로소라</u> <u>ㅎ리로쌍다</u> <u>ㅎ리로소이다</u> <sup>2)</sup>	* <u>ㅎ리로 소니</u>

圖表 1.

合形을 語末語尾와 叙法<sup>17)</sup>에 걸쳐 圖表로 제시한다. 實在形과 補充形은 괄호안에 넣고 원래의 형태는 괄호 밖에 둔다. 體系上으로 再構된 假想形들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sup>18)</sup>

4.2.0. 앞의 圖表(§4.1.3.)에서 提示한 叙法の 순서에 따라 “-옷-, -스-”과 “-돏-”의 統辭・意味上的 特性和 그 關聯性を 究明하기로 한다. 앞의 原則法, 確認法과 같이 이들이 나타나는 場面과 그것에 의해 表示되는 時相도 幅 넓게 論議하기로 한다.

#### 4.2.1. 不定法 (1)

不定法(1)이라 함은 어떠한 時相關聯要素도 포함하지 않은, 圖表의 實在形 “ㅎ쌏다, ㅎ샤스이다, ㅎ야소라; ㅎ소라, ㅎ소이다, ㅎ순다, ㅎ소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1) “諸衆生을 너비 引導샤 菩提를 썰리 일우게 ㅎ샤시이다”(=廣導諸衆生 ㅎ야 舍速成菩提 ㅎ샤스이다)(法華 4:169ab)
- (2) “世尊이 世間에 나샤 甚히 奇持 ㅎ쌏다”(月釋 7:14b)
- (3) “임시옴 비치…頻婆果 | 곧 ㅎ샤시이다”(=唇色…如頻婆果 ㅎ샤스이다)(法華 7:148a)
- (4) “階下 우샤미 당다이 괴샤시이다”(月釋 2:65b)

이상의 用例들은 相關의 場面에 나타난 것이다. (1)은 智積보살이 文殊師利 앞에서 大智德의 과거의 功德을 僞로써 찬탄하는 말이다. 바로 앞 텍스트에서 지적보살은 대지덕이 과거에 중생을 化度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大會와 자기[지적보살]가 그 사실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1)과 같이 그 공덕을 구체적으로 詳화한 것이다. (1)의 事件時는 發話時에 先行한다. 그것은 “-옷-”의 統合用言이 [-상태성]의 動作類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用例(2)는 부처가 7日만에 阿羅漢을 이루어 내는 것을 보고 比丘들이 찬탄하는 말이다. 부처를 상대로 하는 말인데도 “ㅎ샤시이다”로 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獨自임을 意味한다. (3)은 妙莊嚴王이 허공에서 내려와 세존에게 如來의 容모가 非凡함을 찬탄하는 말이다. (4)는 指定詞에 “ㅎ쌏다”의 ㅎ쇼셔體 語形이 붙는 것이다(그 | 쌏다). “괴샤시이다”는 괴샤스이

17) 中世語의 叙法에 대하여 따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8) 不定法과 推測法을 (1)(2)로 表示한 것은 그들의 기능이 同一하리라는 전체 밑에 취해진 조처이며 人稱疑問法 “-나”를 “-오/우-” 統合形의 자리에 配置한 것은 그것이 이른바 意圖法의 疑問을 表示한다는 解釋(安秉禧 1965b:70;1967:220)에 立脚한 것이다.